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주간 중국 창업 NEWS

- ▶ 베이징, 내년 중심구에 5G IoT 구축, 자율주행 시범운행 가능(신랑커지, 2019.1.3)
- ▶ 전자상거래법 정식 실행, 국제전자상거래 규칙 구체화 해야(인민왕, 2019.1.3)
- ▶ 2019년 10대 윤리도덕 논란 과학기술: 반려동물 복제 및 안락사 기계(신랑커지, 2019.1.3)
- ▶ CES 2019 관전 포인트: 롤러블 티비, 5G 휴대폰, 리얼리스트틱 로봇(환치우왕, 2019.1.4)

중국 전문가 ISSUE

- ▶ 5G 일보 (2018.12.31-2019.1.4) – KIC 중국 제공
- ▶ Content & Ent. (2019.1.8) – SV Investment 제공
- ▶ Robot & AI (2019.1.8) – SV Investment 제공
- ▶ BIO & Healthcare (2019.1.8) – SV Investment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2019.1.4)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61) (2018.1.9) – 윤희건 교수 제공

주간 중국 VC 투자 요약

- ▶ IT오렌지 후보: 12/31~1/6까지 있었던 63개 국내 투자/합병건(IT오렌지, 2019.1.7)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 미중관계 “국교수립 후 최악”...하지만 냉전때와는 달라(한겨레, 2019.1.5)
- ▶ 중국, 저출산 심각, 출생률 2년 연속 감소 예측(매일신문, 2019.1.5)
- ▶ 중국판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세대간격차」정책이란?(하버비지니스, 2019.1.6)
- ▶ 「홍콩신문박물관」 홍콩미디어의 역사를 되짚다(로컬뉴스네트워크, 2019.1.7)

KIC중국 NEWS

- ▶ 비주얼캠프, 중국 그린루트엔젤투자사와 사업 협력 체결(2019.1.3)
- ▶ 서울여대, KIC중국 센터 방문(2019.1.8)

주간 중국 창업 NEWS

1. 베이징, 내년 중심구에 5G IoV 구축, 자율주행 시범운영 가능 (新浪科技, 2019.1.3)

향후 4년 베이징 자동차 사물인터넷(Internet of Vehicles), 자율주행과 관련된 발전방안이 출범되었다. 최근 베이징시 경제 및 신식화국(局)은 《베이징시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혁신발전 행동방안(2019년~2022년)》을 발표했다. 행동방안은 향후 베이징시를 5G IoV 중점 시범도시로 적극 추진하고 2022년까지 중점 구역에서 5G IoV 구축을 완성하고 옌칭(延慶)-충리(崇禮) 고속도로, 베이징-송안(雄安) 고속도로, 신 공항공속도로 등 기반시설에서 지능형 커넥티드(Intelligent Connected) 환경, 모니터링·평가 환경 및 지능형 커넥티드 전용차선 건설을 추진한다고 제시했다.

지능형 커넥티드 공중버스 전용차선 시범 건설

사실 향후 4년의 발전방안은 주로 '자동차, 도로,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자동차' 측면에서 4년 동안 자율주행 기술능력 강화, '자동차 대뇌' 생태권 건설 추진, 신형차 제조체계 구축, L3-L4급 신차의 양산 가속화, 글로벌 상위산업과 기술자원 유치, ICV(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핵심부품의 양산능력을 형성한다.

동시에 베이징시는 지능형 도로망 건설을 가속화하고 도로 통신시설, CCTV 시설, 교통신호, 교통표지의 지능형 연결을 실현하고 도로망 전체의 감지능력을 구비해 복잡한 차량-도로 협동의 수요를 충족한다.

베이징시는 고속도로, 간선도로 등 자율주행 테스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옌칭-충리 고속도로, 베이징-송안 고속도로, 신 공항공속도로, 도시 순환도로, 도시간 국도 등 도로인프라에서 지능형 커넥티드 환경과 모니터링·평가 환경을 구축하고 지능형 커넥티드 전용차선을 설치하고 ICV 테스트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동시에 동계올림픽 등 특정 수요에 대비해 옌칭-충리 고속도로와 휴게소에서 자율주행, 편대 주행, 셔틀 운행 등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베이징시는 지능형 커넥티드 도로를 2000KM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부대적으로 전 구간에 CCTV를 설치해 신호시간 최적화, 속도안내, 교통체증 알림 등 교통효율을 높이는 수단을 갖추고 도로변 주차 안내 및 요금계산, 저속작업차량(청소차량 등) 자율주행유도 등 시범 운영을 전개한다.

또 다른 주목점은 공중버스이다. 베이징시는 지능형 커넥티드 버스전용차선 시범구간을 건설함으로써 정확한 도착시간 알림을 실현하고 공중교통효율과 탑승체험을 향상한다. 그리고 지능형 버스전용차선을 점차 확대해 지능형 커넥티드기술의 검증 플랫폼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기술, 시범 운영할 정도로 성숙해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5G IoV 기술의 시간표도 출범되었다. 행동방안은 베이징시를 5G IoV 중점 시범도시로 적극 추진하고 2022년까지 중점 구역에서 5G IoV 구축을 완성해 차량과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결하는 서비스능력을 형성한다고 제시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범운영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베이징시는 서비스제공업체, 자율주행자동차, 승객신용평가 메커니즘을 연

구하고 운행서비스정보 소급(溯及)·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적으로 검증된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해 고정시간대, 고정구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운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다른 응용분야는 물류, 작업 차량의 자율주행이다. 베이징시는 자동물류차량, 자동작업차량을 자율주행 차량의 관리범주로 편입하고 관련 관리·기술 규범을 보완할 계획이다. 여건이 적합한 시범구역을 선택해 지능형 도로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물류차량, 자동작업차량과 일반 차량의 차선별, 시간대별 운행을 실현한다.

시범구역 내에서 '끊김없는 연결'의 네트워크화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제공업체들이 시간별 렌트, 스마트 공중버스, 스마트 주차, end-to-end 주문형 출행 등 원스톱식 교통서비스를 시범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공유형 종합교통서비스체계를 조속히 형성한다.

동계올림픽 기간 ICV 전면 응용

행동방안은 베이징시 ICV 혁신발전의 2022년 발전목표와 중장기 발전목표를 발표했다.

2022년 발전목표에서 동계올림픽은 핵심 일환이다. 행동방안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동계올림픽 기간에 ICV 전면 응용을 목표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응용능력을 향상하고 기술표준, 응용표준 및 안전표준을 보완함으로써 ICV 기술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한다.

그 중 기술혁신 측면에서 시각센서, 레이더(millimeter wave, 레이저 등) 센서, CPU 칩 등 핵심부품 연구개발 중의 병목현상을 타파하고 기술수준을 글로벌 최고수준으로 향상한다.

시범운영 측면에서 고효율, 안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범응용체계를 형성하고 500제곱킬로미터의 시범운영구역을 확보한다.

산업발전 측면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ICV 혁신체인과 산업체인을 육성하고 지능화 제조와 지능화 출행을 주체로 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베이징·톈진(天津)·허베이(河北) 역내의 ICV 제조산업과 응용서비스체계의 형성을 견인하고 베이징시 ICV 및 관련 산업의 규모를 1000억위안까지 끌어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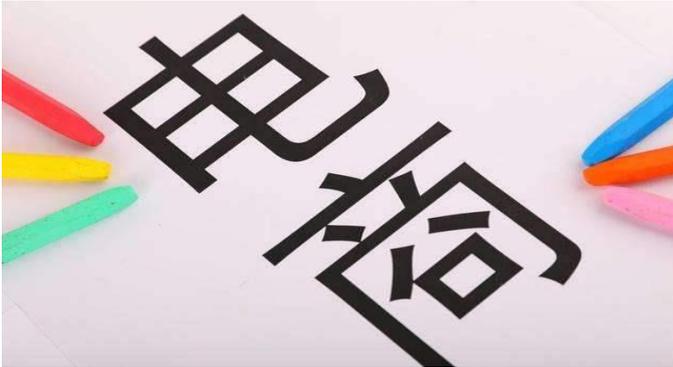
행동방안의 중장기목표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20년 동안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세계 일류의 ICV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ICV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심층 융합한 새로운 지능형 교통모형을 형성하고, 활력이 넘치는 자율주행혁신 생태체계와 '안전·고효율·친환경·문명'의 ICV 사회를 건설한다.

2. 전자상거래법 정식 실행, 국제전자상거래 규칙 구체화 해야(人民网, 2019.1.3)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법》으로 약칭)은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관련 종합 법률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1 조위안 규모에 달하는 국제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중국전자상거래연구중심 특별연구원 겸 베이징더헝(德恒)변호사사무소 선임합작파트너 뤼여우천(吕友臣) 변호사는 “《전자상거래법》중 국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은 원칙성 규정에 그치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국제전자상거래업체의 독과점현상



《전자상거래법》이 발표되자 업계 전반이 출렁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납품업체에서 해외 구매대행, 웨이상(微商,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상품판매)까지 모두 기존의 운영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제 9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한 상품판매 혹은 서비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비(非)

법인조직이다. 여기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인, 플랫폼 입주 경영인, 자체 홈페이지 및 기타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인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쇼핑, SNS 쇼핑, 생방송 쇼핑 등 온라인 쇼핑의 루트가 점점 다양해 지고 있다. 이번에 실행한 전자상거래법은 웨이상, 구매대행, 온라인 생중계 판매방식을 전자상거래 범주로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는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미 '3대 진영'을 형성했다. 왕이카오라(网易考拉), 텐마오(天猫)국제, 양마터우(洋码头), 징둥(京东)글로벌구매, 웨이핀(唯品)국제, 아마존 해외구매, 쓰쿠(寺库), 샤오홍수상청(小红书商城)을 대표로 하는 1선 선두 플랫폼, 쑤닝해외구매(苏宁海外购), 1호점(1号店) 글로벌수입, 쥐메이여우핀(聚美优品), 핑취하이타오(丰趣海淘), 메이리후이(魅力惠), 바오바오수메이툰마마(宝宝树美国妈妈), 이취(易趣)를 대표로 하는 '제2진영', 미야(蜜芽), 바오베이거쯔(宝贝格子), 보뤄미(波罗蜜)글로벌구매, 귀메이(国美)해외구매, 우저우후이(五洲会), 하이미(海蜜)엄선, 쥐여우아오핀(聚优澳品), 콰징타오(跨境淘), 마이러거우(麦乐购), 모시왕(摩西网), 여우지핀(优集品), 빙판하이타오(冰帆海淘)를 대표로 하는 '제3진영'이다. 시장구도의 층차가 뚜렷해지고 독과점현상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세부사항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뤼여우천 변호사의 말대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전자상거래에 비해 국제전자상거래에 관한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은 원칙성 규정에 그치고 규범방식도 총괄적이다.

그는 “한편으로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은 표지적 사건”이라면서 “다른 한편으로 총괄적인 규범일 뿐 상세한 규정이 결여되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이 구매대행, 웨이상, 온라인 생중계 판매를 관리·감독 범위로 편입한 반면 각 플랫폼이 구매대행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세칙을 출범하지 않은 관계로 여러가지 소문이 구매대행업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한 구매대행 종사자는 모멘트(朋友圈;평요우취안)에 “국가정책이 개정되고 전자상거래법 세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신규 법률법규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모

먼트 업데이트는 잠정 중단하고 화물발송은 정상 진행하며 고객은 위챗 문자를 보낼 때 민감한 단어를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공지를 발표했다.

이외에 “위챗이 신규 정책을 채택하고 트래픽과 권한을 제한한다”, “2019 년 전자상거래법 시행하기 때문에 대금, 주문서, 결제, 화물발송 등 민감한 단어는 꼭 피해야 한다” 등 소문이 떠돌고 있다.

현재 구매대행업자들은 관련 부처와 플랫폼의 공고와 세칙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3.2019 년 10 대 윤리도덕 논란 과학기술: 반려동물 복제 및 안락사 기계

([新浪科技](#), 2018.1.3)



2019 년의 10 대 윤리도덕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과학기술 리스트에는 5G 기술처럼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기술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반려동물 복제기술과 안락사 기계 등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기술도 선정되었다.

과학기술 자체는 '법 집행'이란 직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고, 최신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피해를 본다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해외 매체가 보도했다.

미국 포브스지(Forbes)는 비(非) 전문가 부류에게 세계 각 지역의 실험실을 소개할 목적으로 연속 7 년 동안 신년 10 대 과학기술 리스트를 발표했다. 따라서 이런 과학기술의 윤리와 정책문제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2019 년의 10 대 과학기술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반려동물 복제기술: 비용은 대략 2 만 5 천달러에서 5 만달러 정도인데 완전히 일치한 반려동물을 복제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 외 동물애호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복제동물을 잉태하는 숙주동물은 매우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수많은 유기견, 유기 고양이가 떠돌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술을 위해 거액을 허비하면서까지 반려동물을 복제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있다.

2.DIY 신경해커: 가정용 신경자극설비는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DIY 유형의 신경자극설비 프로젝트는 인터넷 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많은 소비자가 미세 전류로 자신의 대뇌를 자극하여 기억력과 주의력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장기적인 신경자극의 효과가 어떠한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대뇌에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하지만 부적절히 사용할 경우 '재앙적인 처방'일 수도 있다.

3.행동인식기술: 더 많은 연구기관들이 전통적인 PINs 코드와 비밀번호 대신 눈·손 조정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해당 장치를 사용할 때 각도, 지압, 손 떨림 등의 손 동작은 app 등록에 필요한 '비밀번호'로 될 수 있다. 우리는 해커의 공격을 막아야 하지만 행동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보관되고 사용되는지 알 필요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행동특징이 어떠한지 알 권리도 있다.

4.5G 기술: 5G 기술은 현재 연구개발 중에 머문 채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물론 AT&T 의 5G 표기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초당 최고 1 기가바이트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5G 기술은 우리의 세계를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5G 기술은 규모가 방대하고, 기반 시설 비용이 많이들며, 새로운 관리감독체계도 필요하다.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기존의 통신장비는 무용지물로 되어 엄청난 양의 전자쓰레기를 발생한다. 그리고 디지털 통신 장비의 차이가 커지면서, 아직까지 속도가 느린 WiFi 를 사용하는 산간지역과의 기술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 격차를 해소하려면 대량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의 재활용 에너지 생산능력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양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5G 기술의 상용화를 저지할 수 없다.

5.아동데이터정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많이 침해하는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있어 아이들의 개인 데이터는 비밀이 아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 Facebook 상의

태아 초음파 사진과 분만실 생중계 사진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흔적이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데이터정보는 해커에 의해 공격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 범법자들은 이런 사진을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미국 연방조사국은 최근에 해커가 수천개 학교의 정보를 탈취했다며, 아이들에게 위험이 존재한다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6.곤충동맹프로젝트: 미(美) 국방부 산하 고급연구계획국(DARPA)의 군사연구는 항상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왔다. 이 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기괴하고 최첨단의 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물론 국가안전을 위한 연구라고는 하지만 도덕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자주 발생한다. DARPA 의 '곤충동맹계획'은 존재하지 꽤 되었지만 최근에 갑자기 주목 받기 시작했다. '곤충동맹계획'의 목표는 유전자변이 곤충을 육성해 새로운 유전자를 식물에 전달하면서 기후변화와 인류활동의 영향에 대한 식물의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다.

7.사이드워크랩스(Sidewalk Labs):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자회사인 사이드워크랩스가 캐나다 토론토 시의 퀘이사이드(Quayside) 지역에서 미래형 도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면적은 12 에이커 정도이다. 이 프로젝트는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연결된 각종 센서를 통해 도시교통, 행인, 날씨, 오염, 건축점용률, 오수처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제 3 자 기업의 도움 없이 실현이 불가능한데 사이드워크랩스는 토론토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사용상황, 데이터가 인간 혹은 환경에 초래한 파괴에 대한 대비책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8.자동번역: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각종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AI 번역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AI 번역시스템으로 각종 언어 중 비속어까지 번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AI 자동번역시스템은 꼭 필요한 만큼 우리는 이 기술을 보완해야 한다. 물론 기술이 계속 보완되면서 많은 편리가 찾아왔지만, 자신의 업무를 완전히 자동 번역 시스템에 맡길 수 있는가는 별개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9.종자실험: 물론 제약회사나 소속 연구인원은 자신이 종자실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영원히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종자실험은 이미 의사들로 하여금 신약과 신약의 잠재적 효능을 숙지하도록 하는 매우 흔한 마케팅전략으로 되었다. 제약회사는 의사를 영입해 신약과 의료장비에 대한 소(小) 범위 연구를 진행한 뒤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소 범위 연구인 만큼 연구인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순간 이익충돌은 이미 형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자신의 연구가 성공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기타 의료인원들에게 신약의 임상실험을 진행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이는 허다한 문제점을 유발하게 된다. 비록 이런 현상은 바람직한 과학기술이 아니지만 훌륭한 마케팅전략임은 확실하다.

10.사르코(Sarco) 안락사 기계: 우리는 사르코 안락사기계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존엄사운동'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르코 안락사 기계로 도출된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사르코는 2018 년에 호주의 안락사 창도자인 필립 닛시케(Philip Nitschke)가 발명했는데, 그는 인류의 사망방식을 개변하기 위해 2019 년에 안락사 기계의 3D 프린팅 설계도를 판매할 계획이다. 안락사 신청자는 3D 설계도를 다운로드해서 프린팅할 수 있지만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자살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정되면 필립 닛시케는 안락사 신청자에게 비밀번호를 보낸다. 24 시간 내에 안락사 기계를 활성화해야 하고 활성화되면 질소가 기계안으로 유입되면서 안락사 신청자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질식 사망한다. 안락사 기계는 건강상태와 관계 없이 50 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구매 가능하다. 필립 닛시케는 "모든 50 세 이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대로 사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르코 안락사 기계는 건강한 사람들을 자살로 유도하는 사기행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과학기술은 재미를 주는 한편 불안감도 조성한다. 기술 리스트의 발표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일을 통제할 에너지가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통제력을 잃은 기술에 의해 쉽게 지쳐지는 것 같다. 관건은 기술을 압도하기 보다는 활용해야 한다.

4.CES 2019 관전 포인트: 롤러블 티비, 5G 휴대폰, 리얼리스틱 로봇

(环球网, 2019.1.4)



영국 《데일리 메일》 1 월 2 일 보도에 의하면 2019 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가 1 월 8 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에서 공룡급 기술업체를 비롯한 4500 개 기업이 롤러블 티비, 5G 휴대폰, 리얼리스틱 로봇(Realistic Robot) 등 최신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관객은 18 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언컨대 롤러블 티비, 5G 휴대폰, 리얼리스틱 로봇, 스마트 어시스턴트가 이번 박람회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1 월 8 일에서 11 일까지 진행되는 2019 년 CES 에 세계 공룡급 기술업체가 참가하

는 가운데 삼성, LG, 소니 등 회사도 최신 제품을 런칭할 계획이다. 이 중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5G 통신기술이 이번 박람회의 중점으로 될 것으로 본다.

이번 박람회는 전자산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4 일 동안 18 만 명이상의 관객들은 4500 개 기업의 신형 티비, 드론, 사물인터넷 가전, 로봇 등 최신 기술과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다.

2018 년 CES 기간 라스베이거스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력이 중단되고 전시관 천정에서 누수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박람회 주최측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67 년부터 시작한 CES 는 지금 이미 전 세계 전자업체가 제품과 첨단기술을 선보이고 미래 생활방식을 창도하는 창구로 되었다. 예전의 박람회에서 전시되는 최신 제품은 DVD, 고화질 TV 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9 년에 5G 이동통신기술이 정식 상용화되는 계획에 따라 올해 박람회에서는 5G 휴대폰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연속 2 년 CES 에 참가하는 구글은 최신 AI 어시스턴트, 스마트 스피커용 소프트웨어를 런칭한다. 구글의 경쟁사인 아마존도 음성인식 어시스턴트 Alexa 를 발표한다. 한국 LG 는 스마트 오븐, 냉장고, 식기세척기, 홈브루 수제 맥주제조기 등 '스마트 주방의 미래'플랜을 선보인다.

최신 가상현실기술, 로봇, 드론, 신형 콘셉트카도 이번 박람회에서 전시된다. CES 에서 자동차기업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신차 개발과정에서 최신 기술은 점점 불가결의 존재로 되었다.

자동차 부스는 또 다시 CES 의 주역으로 떠오른다. 대다수 자동차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한 가운데 일부 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 실물을 선보인다. 도요타는 탐색, 구조, 소방 및 기타 용도의 '자율작업차'를 공개한다. 기타 자동차업체들도 자율주행자동차의 '대뇌'라는 최신 기술을 런칭한다.

이외에 '예측형' 의료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박람회에 참가한다. '예측형' 의료솔루션은 노인들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의료서비스를 예측해 합리적인 치료방안을 설계하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폰에 널리 채택한 안면식별기술이 차별화 서비스와 보안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자동차, 출입통제시스템, 보안시스템에 도입되는 추세이다. 목욕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P&G 는 이번 박람회에서 안면식별과 AI 를 이용한 피부관리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LG 와 삼성은 플렉시블 휴대폰과 롤러블 TV 를 선보인다. LG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65 인치 롤러블 OLED 모니터를 런칭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 감아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용률 높일 수 있는 것이 여러 장점 중의 하나이다.

주간 중국 전문가 ISSUE**5G 일보** (2018.12.31-2019.1.4)

5G 위챗 공식계정은 5G, IoT, IoV(Internet of Vehicles)를 보도하는 신매체플랫폼입니다. 본 자료는 5G 위챗 공식계정에 올라온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의 5G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본 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info@kicchina.org로 문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계 최초! 한국 "5G 상용망" 활용한 TV 생방송 진행(5G, 2019.1.3)

1월 3일, 한국 최대 이동통신사 SK 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망"과 생중계 솔루션을 활용한 "5G 상용망" 기반 TV 생방송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5G 위챗 공식계정(ID:angmobile)은 SK 텔레콤 및 한국의 다른 두 주요 통신사가 이미 2018년 12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5G를 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SK 텔레콤은 한국 최대 신년 축하행사를 엔터테인먼트 채널 XtvN을 통해 실시간 방송했다.

이번 행사 중계에는, 2018년 12월 1일 시작한 5G 상용 서비스와 4년간 개발한 SK 텔레콤 솔루션 'T Live Caster'가 사용됐다.

'T Live Caster'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5G 망과 LTE 망으로 다양한 채널(예: TV와 개인방송)에서 생중계할 수 있다. 행사, 스포츠 중계 등 미디어 분야 외에 공공 안전 강화와 응급 구조원의 빠른 반응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관제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번 생방송은 'T Live Caster'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5G 핫스팟 라우터에 연결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5G 기지국과 XtvN 방송국의 송출 시스템을 거쳐 케이블과 IPTV의 시청자에게 방영됐다.

SK 텔레콤은 이번 5G 생중계를 시작으로 미디어 산업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T Live Caster' 품질을 UHD(4K/8K 초고화질)로 향상 시키고, 2019년 안에 이 솔루션을 개인 방송 플랫폼과 연동할 계획이다.

SK 텔레콤은 5G 상용망을 활용한 드론 방송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월, SK 텔레콤은 글로벌 1위 드론 제조사 DJI와 사업협력을 체결하고, 드론 영상관제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SK 텔레콤 선임부회장이자 5G XIoT-Data(사물인터넷·데이터) 그룹장인 최낙훈씨는 "오늘 5G 상용망을 활용한 TV 생방송에 성공함으로써 SK 텔레콤은 5G 기반 미디어 서비스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일반 크리에이터들도 5G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 생방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5G NR(New Radio) 네트워크의 최고 전송 속도(peak data rate)는 최대 20Gbit/s, 종단간 지연(end-to-end delay)은 ms 급에 달하며, 장비 연결 밀도 10-100 배 증가, 데이터 밀도 1000 배 상승, 스펙트럼 효율 5-10 배 상승, 500km/h의 속도로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한다. 또한 모바일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의 특성과 결합하여 TV 생중계, 영상관제 등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2.8 대 탐 클래스 텔레콤임원 "2019 업계 핫 이슈, 트렌드 예측" (5G, 2019.1.4)

1월 4일 소식에 따르면, 8명의 통신사 임원이 2019년의 전기 통신망로의 핫스팟과 트렌드 예측 중에, 5G와 SD-WAN(소프트웨어 정의 광대역망)를 "핫 키워드"로 예측하여 나타냈다고 5G 위챗 공중 플랫폼(ID:angmobile)이 전했다.

1. AT&T실험실 선진기술 및 시스템부 부회장 Mazin Gilbert의 2019년 예측

2019년은 5G 상용세가 진정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해다. 여기에 엣지클라우드, SDN(Software Defined Network), 인공지능 기술이 수직적으로 활용되면서, 기업 고객들은 2019년부터 스마트 제조, 스마트 헬스,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사물인터넷 확장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

2. 버라이즌 네트워크 및 보안 제품 관리 부총재 Vizi Lonker의 2019년 예측

2019년에는 우리가 말하는 "실시간 기업"(Real-Time Enterprise)의 관한 정보를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많은 기업의 대표들이 SDN, 4G, 사물인터넷 등의 기초기술을 활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변화시키는 중이다. 5G 위챗 공식계정(ID: angmoblie)에 따르면, 2019년에는 "회사 운영과 조직구조를 어떻게 재편성해야 5G, 인공지능/기계학습, 자동화 로봇,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다음 세대 클라우드 컴퓨팅(엣지 컴퓨팅 포함) 등의 혁신적 기술이 보장하는 거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획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중 일부 기술은 이미 '개념'적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현'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다른 기술들은 아직 개발단계에 남아있다. 2019년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실제 사용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3. 프랑스 텔레콤 그룹 미주 지역 수석 부총재인 로버트 윌코크는 Rob Willcock의 2019년 예측

2019년에도 SD-WAN(소프트웨어 정의 광역 네트워크)은 계속해서 기업 고객의 "디지털화" 전환이 중요한 촉진 열쇠가 될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 MPLS(멀티 프로토콜 태그 교환: 통신을 고속화하고 추가 기능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와 인터넷이 통합에 "클라우드"로의 이전까지, 모두 서로 다른 네트워크와 보안 설계를 필요로 한다. 사업자는 SD-WAN를 통해 기업 고객의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자동화"를 도입하여 네트워크가 훨씬 더 높은 효율을 지니게 해준다.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미래솔루션으로, 예를 들자면 프랑스 텔레콤 그룹인 "AMOLED SD-WAN"은 기업 고객이 다양한 응용, 업무를 클라우드로 이전 할 때 역동적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여 업무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해준다.

4. CenturyLink 네트워크 아키텍처 고급 디렉터 Bill Walker의 2019년 예측

2019년을 "대다수의 사업자가 NFV(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와 SDN을 수용하는 것이 주요 추세"의 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시말해, 우리가 전통과 NFV/SDN 사이의 흑백 분리보다는 NFV를 우리 능력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새로운 솔루션과 시스템 구조는 둘 다 포함되고 조작, 운영이 통합될 것이다. 신제품과 배치하지 않고 우리가 작업을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조합의 일부로만 NFV/SDN을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위챗 공식 계정(ID:angmobile)은, 그가 더 나아가 새로운 제품을 더 빨리 출시할 것이며 고객들은 그들의 업무를 더 잘 통제할 것이고, 또한 점차 우리가 초점을 기술의 "하의상달(아래서부터 위)"에서 고객 요구인"상의하달(위에서부터 아래)"로 맞춰, 고객 체험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5. Colt Technology Services의 수석집행관인 칼그리브너(Carl Grivner)의 2019년 예측

2019년, SDN/NFV(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 및 uCPE (가상/통용 CPE)의 채택은 통신사업자와 고객이 상호 교류하는 방식을 철저히 바꿨다. 콘셉트 검증 (PoCs)이 선두로 달리고 있고 또한 모든 통신사업자들은 “소프트웨어가 진정으로 기업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를 인지했다. 2019년, 관련 실험 파트너 관계, 시범, 제한적 배치가 보다 넓은 네트워크의 현실이 될 것이다.

6. 영국 텔레콤 미국 총재, 기술, 생명과학 및 기업 서비스 대표인 제니퍼 아트릴(Jennifer Artley) 2019년 예측

예를 들어 5G 상용 통신망을 배치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향한 고급 데이터 통합같은 것처럼 2019년에 신기술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 “디지털” 전환은 지속적으로 “서비스 (as-a-service)”와 같은 솔루션과 클라우드의 이동을 통해 이뤄질 것 이며, 또한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한다.

7. 영국텔레콤BT 수석 건축설계사인 닐 맥레(Neil McRae) 2019년 예측

2019년에는 점차 많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하는데 보다는 더 지능적인 “자동화” (흔히들 AI라고 부르는 것) 교환과 회사의 정책과 일치하는 보안 데이터를 통해 작업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SD-WAN(소프트웨어 정의 광역 네트워크)을 더 많이 활용될 것이다.

또한 2019년에는 서버 없이 클라우드 기능이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들은 ‘실시간 업무 원격 테스트 기술’을 ‘업무 프로세스’로 확장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러한 프로세스에서의 업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전송하여, 기업이 고객 경험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켜 어떻게 업무를 확대하는지 보다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클라우드 보안층은 이를 실현할 수 있다.

이동통신 기능을 내장한 기업게이트웨이(企业网关)에 대해서는 TPM(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을 활용하여 기업 내부에 배치되는 설비를 제어하고, 5G-Business Collaboration라고 불리는 5G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는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과 새로운 근무 방식을 주기도하고, 텔레콤 운영 플랫폼에도 “어떻게 기업과 합작하는가” 방면에 새로운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 밖에 2019년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 스마트 웨어러블(智能可穿戴设备)기기 등도 점점 추가로 활용되고 있다.

8. Windstream Enterprise 상품관리 부총재 Austin Herrington의 2019년 예측

2019년에, 통합 통신은 채팅 로봇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할 것이다. 2019년에는, 인공지능이 전기 통신 네트워크에서 역할을 발휘할 예정으로, 의도한 라우팅 기술을 SD-WAN(소프트웨어 정의 광대역망)에 적용되어 “동적 라우팅”에서 “예측 라우팅”(predictive)으로 진화한다.

3. 전국 최초로 지하철에 5G 가 들어서다!(5G, 2019.1.7)

이는 5G 실내 커버리지 시스템(2.6GHz 주파수 대역)이 배치되기 시작했고 실제 사용을 위해 투입되었음을 나타낸다.

차이나모바일 스촨(四川) 지부에서 1 월 5 일 ‘국내 최초의 5G 지하철이 청두(成都)에서 정식 개통되었다.’고 7 일 아침 전했다. 5G 위젯 공식플랫폼(ID: angmobile)에 따르면, 이는 “전국 최초 2.6GHz 주파수 대역에 5G 디지털 실내 분포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아는 바에 의하면 청두(成都) 지하철 10 호선 타이핑원(太平园)역에서 모든 객실마다 5G 가 분포되어 있어서 5G 신호를 Wi-Fi 신호로 전환해 모바일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이곳은 추후 5G 실내 분포 시스템 기술을 테스트하기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다.

차이나모바일 스촨지부는, 5G 실내 분포 시스템이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이는 "5G 전방위 커버"가 곧 있으면 실현 될 것을 상징한다며, 미래에는 실내부터 실외까지 뿐만 아니라, 실외부터 실내까지 5G 네트워크는 "빈틈없는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는 실내 내부에 "디지털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무한 가능성을 가져다 주며, 또한 이는 새로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차이나모바일 스촨지부는 5G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방면에서 5G 위챗 공식플랫폼(ID: angmobile)에서 관찰한바에 의하면, 해당 회사는 며칠 전 2 가지 "전국 최초"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① 2018 년 12 월 24 일, 차이나모바일 스촨지부는 "전국 최초"로 2.6GHz 주파수 대역에 5G 객실 개통(주로 비독립 네트워크 "NSA"모드를 사용), 이는 2.6GHz 주파수 대역 5G 규모 네트워크가 한 걸음 나아감을 상징한다. ②2018 년 연말, 청두에서 "전국 최초 5G 시범 거리"를 개통하였다.

청두는 국가 발개위(发改委,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확인된 차이나모바일 그룹회사 12 개 5G 업무 시범 도시 중 하나다. 차이나모바일 스촨지부에서는 5G 네트워크 건설과 업무 실험을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5G 가 청두에서 시범 상용에 탄탄한 기초를 다지게 하였다고 전했다.

청두시는 예로부터 5G 발전을 매우 중시해 왔다. 1 월 4 일, 스촨시위원 부서기이자 시장인 뤼창(罗强)가 주관하여 시정부 제 32 회 상무회의를 열었는데, <청두시 5G 산업발전계획>등의 의제를 검토, 심의하였다. 회의에서 강조하기를, 실질적인 조취를 취하여 3 대 운영 업체가 서둘러서 모두 청두시 에서 5G 시범운영의 기회를 거머 쥐어, 연구개발 혁신 플랫폼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여 청두시 5G 산업의 발전 우세를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5G 산업 배치를 잘 틀어 쥐고, 5G 기지국 시스템, 5G 네트워크 구조, 5G 단말기 설비, 5G 산업화 응용 등 분야를 둘러싸고 5G 전체 산업 사슬의 발전을 적극 추진 해야 한다며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하고 투자유치와 인재단체 건설을 강화하여 우수한 5G 산업 발전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하며, 5G 제품의 보급과 응용을 강화하고, 세계 대학생 하계 운동회 등 중대한 대회들을 이용하여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

차이나모바일도 청두지역 5G 발전을 무척 중시하고 있다. 20 억 위안을 투자하여 2018 년 9 월 28 일 차이나모바일 [청두] 산업 연구원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5G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5G 와 교육, 의료, 농업의 3 대 분야 융합을 촉진한다. 5G 산업 생태계 건설을 가속화하여 5G 기술 응용 시범과 산업 발전 고지를 만들고, 청두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분야 정산학연(정부+기업+학교+과학연구소+개인고객;政产学研用)" 플랫폼을 만들어, 5G 관련 연구 성과의 전환 특히 수직산업 분야의 상업화 발전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본 자료는 SV Investment Shenzhen Office 에서 제작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신문, 뉴스, 협회 등의 자료를 번역하여 내부 사용 목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성, 정확성에 대해서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장형식 이사(jangform@svinvest.com), 배진희 심사역(jhbae@svinvest.com) 또는 윤이상 심사역(ysyoon@svinvest.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egatrend Investors(<http://cafe.naver.com/qfiichina>)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문자료 작성: 윤이상 심사역, 번역: 김태연(청화대 경제관리학원)]

TF Securities – 온라인 플랫폼의 딜레마와 가치

1. 음악 플랫폼 개요: 기술 추진으로 인해 스트리밍 미디어는 주요 음원 유통 플랫폼으로 부상

음악 산업사슬은 주로 콘텐츠 공급상(뮤지션, 음반회사 등), 서비스 공급상(유통 채널, 공연 기획 등), 소비자로 구성된다. 산업의 운영 과정은 음반회사가 작사·작곡가, 가수 및 전문 제작팀을 움직여 음악 제품을 만들어내고, 세 가지 산업사슬 루트를 통해 표현된다. 첫 번째는 음반 산업사슬로, 음악 작품이 음반 마스터 테이프, CD 등 오프라인 제품으로 음반 배급사에 전달되거나 바로 디지털 버전으로 제작해 디지털 음원 배급사에 판매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두 번째는 저작권 산업사슬로, 음반회사는 음악 작품의 저작권을 방송국, 라디오 등 미디어 채널에게 위임해 송출되고, 저작권세를 받아 뮤지션과 배분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세 번째는 콘서트 산업사슬로, 음반회사는 기획사와 협력해 가수의 콘서트, 광고 촬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음악 배급 채널 변혁 과정을 보면, 현재의 음악 산업 형태는 20 세기 중반에 처음 형성되었으며, 당시 원가가 낮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컬러텔레비전, 카세트 녹음기 등 신형 전자제품이 구식 필름과 LP 플레이어 대체하여 음악의 주요 매개체가 되었고, 음악 소비 원가가 대대적으로 낮아져 보급률이 상승했다. 80년대 초반 첫 CD 음반이 나왔고, 2000년에는 CD 판매가 절정에 달해 374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21세기 이후, 인터넷의 출현, 특히 모바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스트리밍 플랫폼은 새로운 음악 배급 채널이 되었으며, 점차 오프라인 음반을 대체하는 가장 중요한 음악 매개체로 부상해 2017년 글로벌 음악 산업 수익의 38%를 차지했다.

현재 대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보면, 해외는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판도라 등을 대표로 각 플랫폼은 서로 다른 제품 기능과 수익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유료 구독과 광고는 해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전형적인 수익모델이다. 유료 구독 모델의 경우 사용자가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일련의 부가 서비스 또한 누릴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스포티파이가 이런 수익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광고 모델의 경우 플랫폼은 광고 전환율을 끊임없이 높여 B2B인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으며, 대표적으로 온라인 TV 판도라가 광고 수익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쿠거우뮤직(酷狗音乐), 쿠위뮤직(酷我音乐), QQ 뮤직, 넷이즈뮤직(网易云音乐)와 샤미뮤직(虾米音乐)이 가장 대표적이며, 각 플랫폼의 기능과 수익모델의 차이가 많지 않다. 중국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은 이용자를 위해 무료 음악 서비스와 추가적인 유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밖에도 플랫폼은 방대한 트래픽에 의존하여 쿠거우뮤직 & 쿠위뮤직의 라이브 방송과 같은 다른 서비스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다.

2. 중국 음악 플랫폼 역사: 10 여 년의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산업 구조 확정

2.1. 발전 과정: 불법 복제품의 횡포에서 저작권 대전까지, 감독관리는 시장 발전을 추진

중국 온라인 음악의 역사는 2002 년 바이두가 MP3 업무를 선보이며 이용자에게 무료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뒤이어 2003 년에 쿠커우뮤직, 2005 년에 QQ 뮤직과 쿠위뮤직, 2006 년 샤미뮤직과 2008 년에 텐텐동팅(天天动听) 등 대형 온라인 음악 플랫폼이 설립됐다. 이 시기에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규정이 없어 플랫폼은 업스트림 사업에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드물고, 모든 음악 이용자들은 무료로 노래를 듣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 플랫폼은 광고와 게임 등 방식에 의존해 수익을 창출했다.

저작권 감독관리 강화로 인해 각종 플랫폼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저작권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플랫폼은 독점 저작권을 획득하기 위해 앞다투며 가격을 제시했고 저작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이용자의 체험을 훼손했다. 이런 배경에서 2017 년 중국 국가판권국은 대형 온라인 음악 서비스 기업과 20 여 곳의 음반회사와 협의하여 양측의 독점 저작권의 수여 또는 구매를 금지하고,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저작권 상호거래를 활성화했다. 이로 인해 QQ 뮤직과 넷이즈뮤직은 제휴하여 99%의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고, 1%만 독점 차별화 경쟁의 형식을 띄고 있다.

2.2 통합 과정: CMC와 텐센트의 합병, 좁혀진 시장 구조

최근 몇년간 텐센트뮤직을 대표로 중국 음악 플랫폼은 대규모 통합을 거치면서 시장 구조가 좁혀졌다.

2003 년 온라인 음악 플랫폼이 속속 설립되고 텐센트 QQ 역시 이용자에게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 년에 정식으로 QQ 뮤직을 출시했다. 2004 년에 쿠거우뮤직, 2005 년에 쿠위뮤직이 설립되고, 2012 년에 쿠거우즈보(酷狗直播, 기존 명칭: 판싱즈보[繁星直播]), 2013 년에 쿠위쥬싱(酷我聚星), 2014 년에 텐센트 취안민 K 거(全民 K 歌)가 출시됐다. 이로써 텐센트, 북경 쿠거우 및 광저우 쿠위는 음악 업무에서 초기적으로 구조 배치를 완성했고 "온라인 음악+소셜 엔터테인먼트"의 다원화 수익모델을 형성했다.

2010 년 중국 최대 TV 음악 서비스 기업 차이홍뮤직(彩虹音乐)이 설립되었다. 2012 년, 전 시나(新浪) 부총재이자 시나 음악부문 책임자 시에귀민(谢国民)은 저작권 회사 하이양뮤직(海洋音乐, CMC 의 전신)을 설립해 2013 년에 북경 쿠위를 2014 년에 광저우 쿠거우를 인수했다. 또한 2014 년에 국내 최대 TV 음악 서비스 기업 차이홍뮤직 및 기존 저작권 에이전시 위엔취안뮤직(源泉音乐)과 함께, 총 5 개의 기업이 하이양뮤직그룹 즉 중국뮤직그룹(CMC)를 결성하며 중국 온라인 음악 시장의 거장이 탄생했다.

2016 년 하이양뮤직(海洋音乐)은 미국증시 상장에 실패하여, 7 월 텐센트 온라인 음악 업무와 합병되면서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그룹(이하, "TME")을 설립, 음악 거장의 판도가 더욱 커졌다.

TME 설립 후, "온라인 음악+음악 라이브방송+온라인 KTV"의 융합 제품군이 출시되며, 끊임없는 인수 및 협력을 통해 음악 자원을 획득했다. 예를 들어, 2017 년 디지털 음원 콘텐츠 및 서비스 기업 아이팅쥬위에(爱听卓乐)를 인수했으며, 같은 해에 글로벌 최대 온라인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주식 교환 계약을 맺었다. 스포티파이 최신 공시에 따르면, TME 는 현재 스포티파이 지분을 9.07% 보유하고 있고, TME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스포티파이는 TME 발행 전 지분 9.1%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 년 10 월 TME 는 대형 글로벌 음반회사 워너뮤직과 소니뮤직 두 곳에 지분을 발행해, 두 회사가 보유한 TME 지분 총합은 발행 전 총자본의 2.2%에 달한다.

TME 발전 과정



자료: 기업 공시자료, TF Securities 리서치센터

주석: CMC 는 하이양뮤직 설립자 시에귀민이 설립한 해외 회사로, 하이양뮤직의 대주주임

3. 온라인 음악 시장 규모: 방대한 이용자 규모, 유료시장 공간 충분

온라인 음악은 인터넷 이용자 수요 빈도가 가장 높은 미디어 형식 중 하나이다. CNNIC 가 발표한 "2018 년 제 42 회 중국 인터넷 발전현황 집계 보고"에 따르면, 2018 년도 상반기까지 중국 온라인 음악 이용자 수는 5 억 5,500 만 명에 달하며, 2017 년 말 대비 6.7% 상승했다. 2018 년 7 월, 온라인 음악 활성 이용자 침투율은 70.6%로, 전년 대비 9.1% 성장하며 모든 범엔터테인먼트(泛娱乐) 상업에서 온라인 영상 다음으로 활성침투율이 높다.

비록 온라인 음악 플랫폼은 방대한 이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이용자 유료 서비스 환경은 아직 시작 단계에 처해있으며, 플랫폼 출시 초기에 무료 모드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용자의 유료 결제 습관 확대 속도가 더디어졌다.

현재 중국 내 온라인 음악 플랫폼은 여전히 이용자에게 무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분의 유료 곡만 무료 재생이 불가능하다. 유료 회원에게 플랫폼은 음원 다운로드, 고음질 음원과 같은 추가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음악 결제율은 해외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TME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2018 년 3 분기까지 TME 산하의 3 대 플랫폼의 유료 회원수는 2,490 만 명이다. TME 유료 회원의 시장 점유율이 78%-86%라고 가정하면, 중국 전체 음악 구독 이용자 수는 2,895-3,192 만 명이라 추론 가능하며 결제율은 5.2-5.8%에 달하고, 스포티파이 결제율 45.5% 대비 매우 낮은 수치이다.

만약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100-112 위안(2017 년 TME 의 ARPU 는 106 위안)이라 가정하면 중국 유료 온라인 음악의 규모는 29.0-35.8 억 위안에 불과하며, 방대한 이용자 기반에 비례 유료 서비스 규모는 비교적 큰 상승 공간이 있다.

본 자료는 SV Investment Shenzhen Office 에서 제작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신문, 뉴스, 협회 등의 자료를 번역하여 내부 사용 목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성, 정확성에 대해서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장형식 이사(jangform@svinvest.com), 배진희 심사역(jhbae@svinvest.com) 또는 윤이상 심사역(ysyoon@svinvest.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egatrend Investors(<http://cafe.naver.com/qfiichina>)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문자료 작성: 윤이상 심사역, 번역: 김태연 (청화대 경제관리학원)]

Fortune SECURITIES – 인공지능+산업응용

1.인공지능 산업사슬에 잠재된 기회, 산업 응용은 최대 돌파구로 적용

1.1 인공지능 산업사슬 기초층

기초층은 데이터의 수집 및 연산을 주로 다루고, 센서,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다. 그중, 센서 및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수집을 담당하고 AI 칩과 클라우드 컴퓨팅은 연산을 책임진다. 기초층은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네트워크, 알고리즘, 하드웨어 부설, 데이터 획득 등 기반을 구축한다.

2021년까지 AI 칩의 시장 규모는 111억 달러로, 연간 복합성장률(이하, "CAGR") 20.9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생산업체의 경우, 시장 연구 회사 컴패스 인텔리전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AI 칩 기업 순위표에서 엔비디아, 인텔과 IBM 이 TOP3 를 차지하고, 화웨이는 12위를 기록해 중국 본토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생산업체가 되었다. 엔비디아는 현재 전세계 GPU 산업의 70% 넘게 점유하여 경쟁사를 훨씬 능가한다. 화웨이는 1991년부터 ASIC 칩 개발을 시작했으며, 2018년 10월에 어센드(Ascend, 昇腾) 910과 어센드 310 클라우드용 칩을 출시했다. 어센드 910의 컴퓨팅 능력은 구글 및 엔비디아를 능가하고, 어센드 310의 최대 소모전력은 8W에 불과하며 2019년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GPU는 대규모 병렬 컴퓨팅 능력을 갖추고 있어 딥러닝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AI 칩 분야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응용을 실현하는 대안이다. 하지만 GPU의 트리형 네트워크 구조는 모든 AI 응용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GPU에 비해, FPGA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맞춰 회로를 수정할 수 있다. 성능 측면에서, GPU의 최고 성능은 FPGA를 훨씬 능가하지만 평균 성능의 경우 GPU가 FPGA보다 뒤처진다. 전반적으로 미래 제조업 분야에서 FPGA는 더욱 성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ASIC은 차세대 AI 칩으로 전력 소모 측면에서 GPU보다 뛰어나며, 양산되면 ASIC의 원가는 FPGA에 비해 월등히 낮을 것이다.

이 칩들은 각자가 유리한 응용 분야가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약할 것이다. 글로벌 PC GPU 칩 생산업체로 인텔, 엔비디아, AMD가 있으며, 모바일 GPU의 경우 ARM, Imagination, 퀄컴, 비반테와 엔비디아가 있다. 징자웨이(景嘉微, 300474)는 중국 최초로 GPU 칩을 개발해 양산하는 상장사로 독특한 기술 우위를 갖춰 국산 PC의 업그레이드를 이끌 것이다. 취안즈테크(全志科技, 300458)는 A주에서 유일한 독립 반도체 IP 코어 설계 회사로, 시스템급 대규모 하이브리드 SOC 및 스마트전원 관리 칩 설계가 주 업무이다. 중국 GPU 시장의 유망한 상장사는 중커수광(中科曙光, 000818), 항진테크(航锦科技, 603019)가 있으며, 캄브리콘 테크놀로지스(寒武纪), 비트메인(比特大陆), 호라이즌 로보틱스(地平线)와 같은 스타트업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음성 업무 관련주는 슬란웨이(士兰微, 600460), 중잉전자(中颖电子, 300327), 베이징원정(北京君正, 300223)이 있다.

반도체 외에도, 인공지능의 기초 기술은 빅데이터 관리 및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존하며,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 중국 빅데이터 관리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새로운 분야에서 점차 대중화 서비스 기초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현재 인공지능의 주요 컴퓨팅 플랫폼은 여전히 클라우드 컴퓨팅이지만 서비스 성격에 따라 플랫폼은 크게 세가지 서비스 측면, 즉 인프라형 서비스(IaaS), 플랫폼형 서비스(PaaS)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나뉜다. 주목할 만한 관련주는 사이테크(思特奇, 300608)가 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IDC 센터의 수요 향상을 촉진한다. 현재 중국의 IDC 업무는 통신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미래 발전 방향은 데이터센터가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언어를 구축하고 집중화된 데이터센터에서 분산화된 데이터센터로 나아가고 있다. 관련주는 튜얼쓰(拓尔思, 300229), 메이리윈(美丽云, 000815), 광환신왕(光环新网, 300383), 펑보스(鹏博士, 600804), 바오신소프트웨어(宝信软件, 600845) 등이 있다.

1.2 인공지능 산업사슬 기술층

기술층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핵심이다. 기술층은 주로 AI 로 구축된 기초층, 연산 플랫폼과 데이터 자원에 의존하여 대량 식별훈련과 기계 학습 모듈링을 진행하고, 감지 지능과 인지 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응용 기술을 개발한다.

감지 지능은 센서, 검색 엔진과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하, "HCI")을 통해 인간과의 정보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대표적으로 컴퓨터 비전(이미지 식별), 자연어 처리 및 생체 인식 등이 있다. 인지 지능은 획득한 데이터에 대해 모듈링 연산을 진행하고, 딥러닝을 비롯한 뉴로모픽 사고 기능을 활용해 결과를 도출한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층은 주로 컴퓨터 비전, 음성 및 자연어 처리와 기계 학습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컴퓨터 비전 (이미지 식별)

이미지 식별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이미지 식별 기술은 이미지 주요 특징을 기반으로 하며, 본 기술은 입체 시각, 운동 분석, 데이터 융합 등 실용적 기술을 위한 초석이다. 또한 내비게이션, 지도 및 지형 매칭, 교통안전, 산업 4.0, 자연자원 분석, 일기예보, 환경 모니터링, 소셜 분야의 안면인식 등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Research and 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인공지능 기반 컴퓨터 비전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3 억 7,000 만 달러이며, 2023년에 253 억 3,000 만 달러에 이르며, 2018-2023년의 CAGR 은 47.54%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이미지 식별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이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메그비(Megvii, 旷视科技)는 중국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먼저 창업한 회사이고, 센스타임(SenseTime, 商汤科技)은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오리지널 기술에 초점을 두고, 시각 기술 연구를 통해 컴퓨터 비전에 감지 인지 능력을 부여했다. 이투테크(依图科技)가 개발한 '칭팅옌(蜻蜓眼)' 인물 플랫폼은 전국 100 여 개 시에公安 시스템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유일의 10 억 대의 인물 이미지 창고(人像库)를 보유해 매칭 능력을 갖춘 회사이다. 이를 제외하고, 하이크비전(海康威视, 002415), 찬다즈성(川大智胜, 002253), 자두커지(佳都科技, 600728), 튜얼쓰(300229), 한왕커지(汉王科技, 002362), 즈후이옌(智慧眼), 윈충테크(云从科技), 투푸테크(图普科技) 등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성 및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HCI 의 핵심은 음성이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시스템 공정이며, '기계 학습'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앞선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그 중에서 TTS(스마트 음성 합성)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음성식별 기술은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에서 점차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자연어 식별은 컴퓨터가 인간의 자연어를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HCI 를 보다 직접적이고 간단하게 만든다. 2017년 4월, 구글 산하의 Lyerbird 는 모든 사람의 대화를 흉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2018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

트는 공유 클라우드 플랫폼에 음성합성 맞춤형 서비스 제품 Custom Voice 를 출시해, 음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했다. 중상산업연구소(中商产业研究院) 데이터에 따르면, 2017 년 전 세계 스마트 음성 시장 규모는 110 억 3000 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2017 년 중국 스마트 음성 시장 규모는 105 억 7,000 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70% 성장했으며, 2018 년의 규모는 159 억 7,000 만 위안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딥러닝에 기초한 음성식별 기술은 현재 중국 내에 3 개의 기업만이 자체 알고리즘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두의 CLD 모델, 아이플라이텍(iFLYTEK, 科大讯飞)의 FSMN 모델, 에이아이스피치(AISpeech, 思必驰)의 VDCNN 모델이 이에 해당된다. 아이플라이텍은 중국 내 선두적인 음성 기술을 보유하고, 현재 언어 클라우드 식별 정확도가 95%를 넘어서며, 비교적 좋은 음성 입력 시장을 갖추고 있다. 2017 년 11 월, 아이플라이텍(002230)은 '신펬이리우성(讯飞留声)' 베타 버전을 출시했고, 10 문장의 음성 채집만으로 개인 음성을 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 평균 채집량의 100 분의 1(마이크로소프트의 500 문장, 업계의 1000 문장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에 불과하다. 문장 의미 인지의 경우, 장난화공(江南化工, 002226)의 '투링로봇(图灵机器人)' 정확도는 95%에 이르며,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다. 음성식별 기술은 HCI, 음성 이해, 콘텐츠 추천, 차량 음성 시스템, 음성 내비게이션, 원격의료, 스마트 커뮤니티 그리고 다양한 음성 상담 플랫폼에서 중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영향력 있는 스마트 음성식별 회사는 알리클라우드(阿里云), 유니사운드(Unisound, 云知声)가 있으며, 동팡왕리(东方网力, 300367) 또한 주목할 만한 관련주이다.

기계 학습

기계 학습은 주로 딥러닝 또는 강화 학습 등의 알고리즘 연구로 이루어지고, 기계에게 스스로 배우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현재 알고리즘 분야에서의 돌파를 중점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2019 년은 기계 학습의 핵심이 되는 해로, 2021 년까지 기계 학습 분야의 누적 투자액은 580 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예상된다. 심층 신경망, 컨볼루션 신경망 및 순환 신경망과 같은 주요 알고리즘은 방대한 뉴런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많은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는 주로 대형 인터넷 기업이 포진하고 있다. 'AI 전선(AI 前线)'은 전 세계 기계 학습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42%를 예측하고 있다. 대형 회사 업무 분야와 전략에 따라 기계 학습 초점이 약간 다르고, 각 회사는 기초 알고리즘 연구와 동시에 특정 산업 응용 또한 주목한다. 징둥(京东) DNN 실험실은 신경망 알고리즘을 연구하지만 주요 발전 방향은 스마트 고객센터 분야를 따라간다. 포패러다임(4Paradigm, 第四范式)은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기계 학습 관련 기술 기업으로, 2017 년 5 월 'Gartner 2017 Cool Vendor'로 선정됐으며, 중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범용 플랫폼형 인공지능 회사이다. 또한 알리슈자(阿里数加), 바이두 IDL, 텐센트지즈(腾讯机智)도 괜찮은 제품이다.

본 자료는 SV Investment Shenzhen Office 에서 제작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신문, 뉴스, 협회 등의 자료를 번역하여 내부 사용 목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성, 정확성에 대해서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장형식 이사(jangform@svinvest.com), 배진희 심사역(jhbae@svinvest.com) 또는 윤이상 심사역(ysyoon@svinvest.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egatrend Investors(<http://cafe.naver.com/qfiichina>)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자료 작성: 배진희 심사역, 번역: 김세연 (청화대 경제관리학원)]

Hengda Research – 제약회사의 높은 판매비용

1. 국가 의보국, <질병진단에 관한 분과별 국가 지불 신고 시범 시행에 관한 통지> 발표

12 월 20 일, 국가 의보국은 <질병진단에 관한 분과별 국가 지불 신고 시범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DRGs 국가 신고 시범 작업을 조직하여 질병진단별 국가 분과제(DRG) 추진을 가속화하고 DRGs 지불 시스템을 건립하였다.

사업 목표의 경우, "상층설계, 시뮬레이션, 테스트 실시"의 3 단계 작업 배치에 따라, DRGs 도시별 심층 참여를 통해 공동의 파일럿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 경로를 모색하여 전국에 통일되게 적용될 DRGs 지불 정책, 공정, 그리고 기술 표준 범위를 완성하여 본보기로 삼고, 모방하며, 시범 시행 성과를 널리 보편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범 시행 범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성은 1-2 개 도시(직할시가 전체 시의 단위)를 국가 시범도시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시범도시는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범도시 현지 정부가 시험 업무를 높은 수준으로 중시하고 지지하며, DRGs 유료화 방식 개혁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거나, 이미 DRGs 별 유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시범도시의 의료정보시스템은 비교적으로 통합된 의료보장약품, 진료항목, 그리고 소모품 코딩을 가진다; 3) 시범도시는 최소 3 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DRGs 별 유료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4) 시범도시 의료보장부서는 현지의 위생건강, 재정 등 관련 부서 및 구역 내 시범 병원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상용화된 협의 소통 체제를 구축하였다; 5) 시범도시의 의료보장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일정한 잔고가 있다.

각 성(省)급 의료보장부서는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 12 월 20 일 이전에 서면 신청과 정보를 취합한 총계를 국가 의료 보장국 의약 서비스 관리사에 송부해야 한다. 국가 의료보장국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가 DRGs 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시범 도시를 확정하고,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2. 대량구매 구매 기간 2019 년 3 월 전후로 예정

싸이보란(赛博蓝)에 의하면, 12 월 20 일, 국가조직의 의약품 집중 조달 시범사업이 상하이 약사소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국가조직의 의약품 집중 구매와 사용시행사업부의 의견을 관철하고, 평온하고 질서있게 4+7 도시의약품 집중조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조직의 <약품 집중조달 시범사업회의>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싸이보란(赛博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4+7 벨트 조달의 실행에 관해서는 각 지역별 상황이 모두 다르며, 대략적으로 내년 2 월 말 혹은 3 월 초, 각 구역이 2019 년 3 월 15 일까지는 완전히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하며 상하이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략 이달 말이나 2019 년 1 월 초에는 구체적인 실행 세부사항이, 1 월 중순에는 지방 실행 세부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 양쯔강 약업 그룹 유한공사의 텍스메데토미딘염산염주, 대량구매 선택가로 산동성, 간쑤성 온라인 등록

12 월 19 일, 간쑤성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집중조달망은 <“4+7 도시의약품 집중조달 사업” 선정업체인 양쯔강 약업 그룹 유한공사의 텍스메데토미딘염산염주에 대한 인터넷 거래 통지>를 발표했다. 국가 의약품 집중구매 시범사업인 “4+7 도시의약품 집중조달 사업”에서 선정된 결과가 발표된 후 양쯔강 제약업그룹 유한회사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텍스메데토미딘염산염주 2ml: 0.2mg 을 간쑤성 인터넷에 등록, “4+7 도시의약품 집중구매”의 선정가와 다른 가격대의 제품 역시 인터넷에 등록하였다. 의약품 차대조 가격규칙에 따라, 성(省)급 의약품 구매기관은 텍스메데토미딘염산염주 주사액 1ml:0.1mg 의 가격을 검사하여 계산하였다. 현재 두개 약품을 간쑤성 약품 집중조달 플랫폼에 배치하여 전 성이 가격을 통일하였으며, 12 월 24 일부터 전 성에서 시행되었다.

12 월 20 일 산동성 의약품 집중조달망은 <“4+7 도시의약품 집중조달”에 대한 일부 제품의 인터넷 공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산동성의 질 좋은 의약품의 임상시 보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4+7 도시의약품 집중구매”에서 선정된 제품 중 산동성 온라인 시스템에 아직 미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온라인 등록 신청을 받아 등록하고 있다. 양쯔강 약업 그룹 유한공사는 텍스메데토미딘염산염주 주사액(규격: 2ml:0.2mg)은 온라인 등록 신청하였으며 온라인 등록 가격은 532 위안/4 개로 신청하여, 현재 공시 하에 있다.

4. 국내 첫 PD-1 단일 클론항체 약물 시판 승인

12 월 17 일 국가 의약품 감독관리국 홈페이지는 트립플래시 단일 클론항체 주사액(군실생물)의 시판 허가 신청을 공식승인 하였으며 출시심사는 총 284 일이 걸렸다고 발표했다. 국산 PD-1 단일 클론항체 약물로는 최초 출시된 것으로 치료 실패 후 국지적 진전이나 전이성 흑색종에 사용된다.

앞서 출시된 O 약과 K 약에 비해 트립플래시는 단일 클론항체 주사액이 높은 PD-1 친화력이 있고 효과 인자 작용이 없기 때문에 항원에 대한 결합이 보다 긴밀하고 이해율이 낮으며, 양호한 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일 클론 항체 주사액의 말기 흑색종 치료 2 차 임상실험 결과, 단약을 사용하는 환자 중 ORR(객관적 완화율)은 21%에 달하며, DCR(질병통제율)은 60%에 달하며, 전통적인 치료약인 다카르복시에 비해 트리폴리 단일 클론항체는 치료 효과에 있어 현저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K 약의 흑색종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에서는 환자 ORR 이 21%~33%, PFS(진전 없는 생존기)가 4.1 개월이다. 이에 반해 트립플래시는 현재 진행중인 임상시험 결과 전통적인 치료제보다 뛰어나고 수입 약물 치료에 가까운 효과를 보이고 있다.

5. 항서약: SHR-1210 합동 갑황산 아파데니 일선 간세포암 치료 3기 임상실험

항서약은 12 월 22 일, 회사의 항 PD-1 항체 SHR-1210 합동 갑황산 아파데니 일선에서 간세포암을 치료하는 국제 멀티센터 3기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미국 FDA 와의 소통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SHR-1210 은 항서약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완전한 자주적 지적 재산을 가진 인원화 항 PD-1 g 항체, 혈액 악성종양과 실체종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 항서약이 실시 완료 및 진행중인 임상연구에서는 SHR-1210 단약, SHR-1210 연합 아파데니가 모두 좋은 치료효과를 보였다. 2018 년 10 월 발표된 임상종양학저널(CCR)의 한 항목인 SHR-1210 연합메틸알파데니(联合甲磺酸阿帕替尼)는 말기 간세포암을 치료한다. 위 및 위식도 결합부선암의 Ib 기 연구에서, SHR-1210 연합알파데니 250mg/d 치료 말기 간세포암의 객관적 완화율(ORR)이 50%에 달하며, 6 주간 질병 통제율이 93%에 달했고, 중위 무질환 진행 생존기간은 7.2 개월로, 치료 효과는 현재의 표준 치료보다 현저히 뛰어나며 안전성이 좋고 통제가 가능하다.

6.동아 아교(东阿阿胶): 동아 아교 출고가 6% 인상

동아 아교가 12 월 21 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교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회사의 투자와 시장 수급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과정을 걸쳐 회사의 주요 제품인 동아 아교의 출고가를 6% 인상하기로 했다.

동아 아교는 아교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아교 전 산업 체인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 표준 향상과 소비자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며, 과학기술 연구 개발과 생산설비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제품 품질과 효율을 높이고 있다.

7.건우주식: 간소나트륨 주사액 USP 신고 ANDA 승인

건우주식이 12 월 22 일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미국 FDA 로부터 간소나트륨 주사액 USP 의 ANDA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간소나트륨 주사액 USP 는 항응, 항혈전 등의 증상 치료에 주로 사용되며 혈전 형성이나 전색성 질환(예: 심근경색, 혈전성 정맥염, 폐색전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폭신성 혈관 내 응혈(DIC); 혈액투석, 체외순환, 도관술, 미세혈관 수술 등의 조작 및 어떤 혈액 표본 또는 기기의 항응결 처리에도 사용된다. 현재 미국 내 간소나트륨 주사액 USP 의 주요 생산업체는 FRESENIUS KABI USA, PFIZER, SAGENT PHARM 등이 있다.

간소나트륨 주사액 USP 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것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하고, 제품 라인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미국 시장에 한걸음 다가섰음을 보여, 회사 전체의 시장경쟁력을 높인다. 이는 회사의 경영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中, 4 차산업혁명 핵심 '블록체인' 기술도 삼키나? '금융+게임'으로도 진화(글로벌이코노믹, 2018.12.27)

4 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이 중국 대륙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비록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만큼은 미래 산업 정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덕분이다. 금융과 유통, 실물경제에 이어, 게임 분야까지 셀 수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진두지휘 아래 블록체인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국인 10 명 중 4 명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아주경제, 2018.12.31)

중국인 10 명 중 4 명이 향후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일(현지시간) 아시아 블록체인 전문 트위터 채널 PA 뉴스(PANews)가 중국인 42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40%는 "암호화폐에 기꺼이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은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 등의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22.2%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63%는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3. 중국민의 무한지지, 네오·온톨로지·트론·바이텀(서울경제, 2019.1.1)

중국 본토에 기반한 거래소가 없고 위안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차이나머니'는 크립토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과시한다. 중국 투자자들은 자국에서 탄생한 코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성향이 있다. 막강한 자본과 국가적인 관심으로 트론, 네오, 쿼텀, 바이텀 등이 중화권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에 자리한다.

4. 中 은행, 블록체인으로 '신용' 블랙리스트 판별 (지디넷코리아, 2019.1.2)

블록중국 금융가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신용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큰 효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쑤닝은행이 블록체인 블랙리스트 공유 플랫폼에서 모든 금융기관이 자사가 보유한 블랙리스트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저장하기 시작한 결과 지난 달 말 기준 이미 540 만 건의 블랙리스트 데이터가 축적됐다고 중국 차이나지닷컴이 보도했다.

이 플랫폼은 쑤닝은행이 지난해 3 월 자체적으로 개발해 6 월부터 가동에 돌입했다. 이미 7 개의 중국 내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쑤닝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블랙리스트 정보가 축적되면서 금융 신용 사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연합적 틀이 마련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플랫폼은 은행의 기록과 신용평가정부 업데이트 점수를 분산원장 형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은행에서 신용 사기를 친 사람이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사기를 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 각 금융기구는 하나의 블록체인 '노드'가 되며 쑤닝은행이 공유한 첫 블랙리스트 명단에 대해 각 노드가 자신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61) (2019.1.9)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틈새에도 틈새가 있다.

디자인의 시작은 남다른 관점에서 문제점 의식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한결같이 지키고 싶은 것은 배려하는 디자인이다. 이것을 근본에 놓고 시대적 요구의 변화에 동조하며 디자인한다.

세계는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어가고 있다. 환경파괴는 국가나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공공 식당(왼쪽)과 심천 공항에 음료대(중앙 및 오른쪽)에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이 쓰레기통 안에 가득차 있다.)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일회용 종이컵이 쓰레기통 안에 가득 차 있다. 필자는 가는 이 식당은 하루 이용자가 약 천명 정도이다. 식사를 하고 버려질 종이컵이 천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항에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정말 상당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식당은 상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지만, 최소 수 백의 컵을 준비해야 하고 계속하여 컵을 씻어야 한다.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은 위의 사진같이 원뿔형, 원통형, 납작한 사각형 이렇게 세 종류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운데 있는 원통형 종이컵이 가장 많은 사용하고 있고 제작 시 가장 많은 종이가 들어간다. 컵처럼 원통형이라 테이블 위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원뿔형과 사각형은 들고 있어야만 한다. 사용에 제약을 준다.

그러나 원뿔형과 사각형은 적은 양의 종이로 만들 수 있

어 조금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바닥에 놓을 수 있으면서 뭔가 편한 것이 없을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통형 종이컵보다 작으면 된다. 위 사진의 왼쪽의 종이컵의 형상을 그대로이지만, 사용한 종이 양은 반이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니지만, 의미 있는디자인이다.

디자인은 어떤 경우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다.

이름하여 '세 모금 컵'이라고 한다. 이름도 적절한 것 같다.

(기존 종이컵보다 종이의 양을 약 50% 절약한 세 모금 종이컵(왼쪽))

일회용 종이컵에 무슨 시장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틈새엔 틈새가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 틈새가 통로가 될 수 있다. 사장님도 틈새를 통로로 만들 수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제품에 녹여 디자인으로 만들면 된다.

주간 중국 VC 투자 요약

IT 오렌지 주보: 12/31~1/6 까지 있었던 63 개 국내 투자/합병건

(출처:IT 오렌지주보(IT 桔子), 2019.1.7)

IT 오렌지의 지난 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주(12.31~1.6)에는 지난주에 비해 1건 감소한 63건의 투자/합병이 발생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서비스 업계가 투자금융 사건이 제일 많이 발생한 업종으로 22% 차지했으며 14건의 투자/합병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업이 18% 차지했으며, 22건의 투자 사건이 나타났고, 하드웨어 업계가 3위로 16% 차지하면서, 19건의 투자/합병 사건이 나타났다. 이번 라운드로 바라보면, 초반에 발생한 투자가 많다. 이 중 A라운드 용자가 30% 차지하면서 19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2위는 엔젤투자가 15건 발생으로 24%를 차지했으며, 인수합병과 전략투자는 평균 9건이 발생으로 14%를 차지했다.

지난주 주목할 만한 투자 유치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주 BATJ 중 알리바바(阿里巴巴)와 징둥(京东)은 투자 동향이 없으며, 바이두(百度)와 텐센트(腾讯)의 투자 동향을 살펴보자.

바이두는, 저번주 3건의 투자에 참여하였다. 2019년 1월 2일, 3D 감지시스템공급업자인 "위광과학기술(驭光科技)"은 억 위안의 B 라운드 용자 유치에 성공했다. THG Ventures(清控银杏)이 첫 투자에 나섰고, Baidu Ventures(百度风投)、순웨이 캐피털(顺为资本)등 구주주들이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1월 3일, 칩 제조상인 "华兴集成电路"은 1000만 달러의 A 라운드 용자 유치에 성공했다. 투자자로는 선창투우(深创投), Baidu Ventures(百度风投), 레노버창투(联想创投), 엔젤 투자자인 치디즐싱(启迪之星)이 계속해서 투자에 참여했다.

1월 4일, AI 회사 "RealAI(瑞莱智慧)"은 수천 위안의 엔젤투자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에서 Baidu Ventures(百度风投)와 쑹커창싱연합(中科创星联合)이 첫 투자에 나섰고, 수목청화학교펀드(水木清华校友基金)이 동반 투자를 했다.

텐센트측에서는, 지난주 1건의 투자에 참여하였다. 2019년 1월 1일, Ventures(梅花创投)의 자동차 미디어 프로젝트 유치이허우(有车以后)는 2억 위안의 D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고, 평가액은 2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이번 라운드에서 텐센트(腾讯), Ventures(梅花创投) 산하 성장 펀드(成长基金), 신메이 재산(新梅资产), Oriental Fortune Capital(东方富海), 란투창업투자(蓝图创投) 총 5개의 톱기관에 대한 투자를 창출한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투자·인수합병 건이 발생했다:

금융부에서는, 2019년 1월 3일, 종합성 금융 서비스업체인 주진은행(紫金银行)은 발행가격 3.14 원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주진은행(紫金银行) 이번 총계는 366,088,889 주를 발행하며 발행가격은 3.14 원/주이다.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는, 12월 31일 애니메이션 제작 서비스 업체인「푸쉬픽처스」는 B 라운드에서 B 라운드 용자 유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하였다. B 라운드에서 푸쉬픽처스(福煦影视)는 웨원그룹(阅文集团)과 화이브라더스(华谊兄弟)에 이어서 세번째 상장회사 주주가 되었다.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12 월 29 일 음성 인식 업체인 성즈커지(声智科技)는 2 억위안의 B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다. 이번 라운드에서 ADDOR Capital(毅达资本)이 첫 투자에 나섰고, FreesFund(峰瑞资本), 정취펀드(正居资本)이 함께 투자에 나섰다. 중관촌 은행(中关村银行)、InnoVen Capital 은 연합하여 참가하였다.

자동차·교통 부문에서는, 1 월 4 일, 무인테크놀로지 회사인 원위안즈항(文远知行)이 A 라운드에서 수천만 달러의 용자를 받았다. 농민귀지(农银国际), 상탕커지(商汤科技), SenseTime 이 함께 투자에 나섰다.

주간 투자현장 일람표

분야	기업명칭	일시	투자단계	금액(위안)	투자자	유형
생활	FAMILYONE (邻邻壹)	2019-01-02	A 라운드	3000 만 달러	Sequoia Capital (红杉资本中国) Capital Today (今日资本) GAORONG CAPTIAL (高榕资本) Sourcecode Capital (源码资本)	투자
	zuodashi (佐大狮)	2019-01-02	엔젤	수천만	GAORONG CAPTIAL (高榕资本) LightUp Capital (点亮基金)	투자
	OMESCAPE(奥秘之家)	2019-01-03	Pre-A 라운드	1300 만	TIPPING POINT CAPITAL (引爆点资本)	투자
	Babypet	2019-01-04	엔젤	1000 만	미공개	투자
전자상거래	두 APP (毒APP)	2019-01-02	엔젤	미공개	Hupu (虎扑体育)	투자
	FANTUAN DELIVERRY (饭团外卖)	2019-01-03	엔젤	500 만 달러	GCI Venture, PinYi Capital, Centregold capital	투자
부동산	즈샨커지 (知闲科技)	2019-01-02	엔젤	수백만	OFC (东方富海)	투자
광고·마케팅	Weimob (微盟)	2019-01-03	F 라운드-상장전	4200 만 달러	ChinaPnP (汇付天下) 빙성커지 (丙晟科技) 상하이원탕 (上海文棠)	투자
교육	Micro Language (微语言)	2019-01-01	Pre-B 라운드	5000 만	CHD Investments (鼎辉投资) XDFang (新东方)	투자
	meten (美联英语)	2019-01-02	C 라운드	3 억	DGC (道格资本) MOOC-CN(慕华投资(MOOC-CN Education 慕华教育)) Cfiivc (中金资本)	투자
	Green Kids (青蛙研学)	2019-01-04	엔젤	수백만	미공개	투자
	Powered By EduSoho (博雅云课堂)	2019-01-05	엔젤	1000 만	미공개	투자
금융	Leumi Card	2019-01-02	합병	6.66 억 달러	Warburg Pincus (华平投资)	합병
	ifepay (信条管家)	2019-01-03	엔젤	3000 만	미공개	투자
	e-capital transfer (通证通)	2019-01-04	엔젤	수천만	원이텐스 (允贻天使) Shanghai Jieling Business Consulting (Group) Co., Ltd. (吉额翎集团)	투자
	ECREDITPAL (排列科技)	2019-01-04	A 라운드	수천만	China Growth Capital (华创资本) Tsingyuan Ventures (清源资本)	투자
	Perlin	2019-01-05	전략투자	3.8 억 홍콩 달러	미공개	투자
	UU 핀푸 (UU金服)	2019-01-05	엔젤	5000 만	INNO CAPITAL (因诺资本) fzj (分众科技)	투자
	우지커지 (无际科技)	2019-01-05	전략투자	미공개	GOLDEN SECTION (鎏盛资本)	투자

농업	ymt (一亩田)	2019-01-02	C+라운드	수억	Sequoia Capital (红杉资本中国) China Growth Capital (华创资本) Yiguo (易果生鲜)	투자
기업서비스	칭창허쯔 (清创和梓)	2018-12-31	전략투자	4000 만	미공개	투자
	투야커지 (图鸭科技)	2018-12-31	A 라운드	수천만	GSR Ventures (金沙江创投) Tisiwi (天使湾) Vertex Ventures (祥峰投资) Temasek (淡马锡) Mfund (魔量基金) NEW HORIZON (新进资本) 라얼부창투 (拉尔夫创投)	투자
	Mogulinker(蘑菇物联)	2019-01-02	A 라운드	수천만	ORIZA HOLDINGS (元禾原创创投)	투자
	LIGHT CONTROL (驭光科技)	2019-01-02	B 라운드	1 억	Shunwei Capital (顺为资本) Cathay Capital (凯辉基金) 레노버창투그룹 (联想创投集团) QiDi Incubator (启迪之星 (QiDi Incubator 启迪孵化器)) THG Ventures (清控银杏创投) Baidu Ventures (百度风投) Zhongguancun qihang Fund (中关村启航基金)	
	Lecai (Beijing) Technology Co.,Ltd (乐才科技)	2019-01-02	전략투자	1.25 억	MICROSEA (微海咨询)	투자
	Tangfengenergy (唐锋能源)	2019-01-02	A 라운드	미공개	SAIC Capital (上汽投资-尚欣资本)	투자
	ZLG (致远电子)	2019-01-02	A 라운드	미공개	hnntct (河南农开投) FUNDE CAPITAL (富德资本)	투자
	우치바오저 (吴起宝泽)	2019-01-02	합병	1.47 억	SHAANXI PROVINCIAL NATURAL GAS CO.,LTD (陕天然气)	합병
	Baicells Tech (佰才邦)	2019-01-03	B+라운드	수억	Qualcomm Ventures (高通)	투자
	aihujing (虎鲸跳跃)	2019-01-04	Pre-A 라운드	300 만 달러	K2 Ventures (险峰长青) BlueLake Capital (蓝湖资本)	투자
	RealAL (瑞莱智慧)	2019-01-04	엔젤	수천만	CASSTAR (中科创星) ShuiMu Tsinghua Alumt Capital (水木清华校友基金) Baidu Ventures (百度风投)	투자
	MAGIC FRUIT (魔果子系统)	2019-01-04	엔젤	400 만	PTTC (聚鼎网络) 츠링커지 (驰麟科技)	투자
	DIASCIE TECHNOLOGY (迪艾斯科技)	2019-01-04	전략투자	미공개	GP (基蛋生物)	투자
	PARATERA (并行科技)	2019-01-05	Pre-B 라운드	4000 만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 (国家中小企业发展基金(국중창투 国中创投)) 지아밍하오춘귀통칭왜안 (嘉铭浩春国同清源)	투자
	iyourcar (有车以后)	2019-01-02	D 라운드	2 억	Tencent (腾讯) OFC (东方富海)	투자

자동차/ 교통					Plum Ventures (梅花创投) 란투창업투자 (蓝图创投) ST (新梅资产)	
	WeRide.ai (文远知行)	2019-01-04	A+라운드	수천만 달러	ABC International (农银国际) Sense Time (商汤科技)	투자
	jingzhengu (精真估)	2019-01-04	B+라운드	수천만 달러	Yiche.com (易车网) COX GROUP (COX 集团)	투자
스포츠	SUN PIG (光猪圈健身)	2019-01-01	A+라운드	5100 만	China Capital Management Co.,Ltd (中信建投资本) 통런부어다 (同人博达) 1989vc (1898 创投)	투자
	송귀바오스포츠 (熊国宝 体育)	2019-01-04	엔젤	1000 만	Ruyi (如意控股)	투자
문화/엔터테 인먼트	부어야부생회 (博雅浮生 绘)	2019-01-01	엔젤	수백만	Gaozhang Capital (高樟资本)	투자
	르탄공원 (日谈公园)	2019-01-02	엔젤	수백만	Toutoushidao (头头是道投资基金)	투자
의료/건강	PRIMECARE INTERNATIONAL (贝康国际)	2018-12-31	A 라운드	5000 만	GAORONG CAPTIAL (高榕资本) 탕주자본 (唐竹资本) Shulan Health (树兰医疗)	투자
	MATIZ (美迪斯)	2019-01-01	합병	1.04 억	Zhende Medical (振德医疗)	합병
	징리의료 (精励医疗)	2019-01-02	Pre- A 라운드	1000 만	SUNZ CAPITAL (三泽资本)	투자
	ANTENGENE (德琪医药)	2019-01-02	B 라운드	1.2 억 달러	Qiming Venture Partners (启明创投) FountainVest Partners (方源资本) Taikang Asset (泰康资产) Wuxiapptec (药明康德) Boyu Capital (博裕资本) TF Capital (泰福资本) Celgene Corporation (新基)	투자
	AKS (澳斯康)	2019-01-02	A 라운드	3 억	빙홍자본 (秉鸿资本) Addor capital (毅达资本) Nac-Capital (联新资本) jsqr (乾融创投) 수민터우아우동제약 (苏民投教东药业) BLUE BAY CAPITAL (蓝湾资本)	투자
	Inner Medical (英美达)	2019-01-02	A 라운드	수천만	HTI (深圳高新投) MALIANG CAPITAL (马良资本)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 (国家中小企业发展基金(국중창 터우國中创投))	투자
	CONNECT (康乃德)	2019-01-03	B 라운드	5500 만 달러	Northern Light Venture Capital (北极光创投) Qiming Venture Partners (启明创投) COWIN VENTURE CAPITAL FOUNDATION (凯风创投) B&DCapital (尚城资本)	투자

	INNOCARE (诺诚健华)	2019-01-03	전략투자	1.6 억 달러	Vivo Capital (维梧资本) CCBPrincipal Capital Management (建信资本) Loyal Valley Capital (正心谷创新资本) 3H HEALTH (三正健康) e-PLUS+CCAPITAL (益普资本)	투자
	Celgene	2019-01-04	합병	740 억 달러	Britol-Myers Squibb	합병
	지생제약 (济生制药)	2019-01-04	합병	2.13 억	jzyygf (江中药业)	합병
	shzy (桑海制药)	2019-01-04	합병	1.64 억	jzyygf (江中药业)	합병
하드웨어	우링테크놀로지 (物灵科技)	2019-01-01	A 라운드	미공개	Sense Time (商汤科技)	투자
	YUNJI TECHNOLOGY (云季科技)	2019-01-03	전략투자	미공개	Ctrip (携程)	투자
	화싱지칭덴루 (华兴集成电路)	2019-01-03	A 라운드	1000 만 달러	Spring Seed Group Limited (深创投) 레노버창투그룹 (联想创投集团) TusStar (启迪之星 QiDi Incubator (启迪孵化器)) Baidu Ventures (百度风投)	투자
	beiya (贝芽科技)	2019-01-03	전략투자	2040 만	OMH (东杰智能)	투자
	ARLANXEO	2019-01-03	합병	16 억 달러	Saudi Aramco	합병
	Anteryon	2019-01-03	합병	3663 만	징팡커지 (晶方科技)	합병
	상루이실리콘재료 (兴瑞硅材料)	2019-01-03	합병	미공개	싱파그룹 (兴发集团)	합병
	sucheon (硕橙科技)	2019-01-04	Pre-A 라운드	1000 만	Plum Ventures (梅花创投) 샤먼가오터우 (厦门高投)	투자
	부위신로봇 (博信机器人)	2019-01-04	Pre-A 라운드	1000 만	Plum Ventures (梅花创投) THG Ventures (清控银杏创投) 커신자본 (科鑫资本)	투자
	Tianhe Electronic (无锡天和电子)	2019-01-04	A 라운드	미공개	Yinhua Capital (银桦投资)	투자
	TCL	2019-01-06	전략투자	미공개	Xiaomi (小米科技)	투자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1.미중관계 “국교수립 후 최악”, 하지만 냉전때와는 달라(한겨레, 2019.1.5)

‘미중국교정상화 40 주년 : 화해에서 충돌의 시대로’ 중국외교학원의 蘇浩 교수 인터뷰, 「중국, 양보하겠지만 미국의 요구에는 불합리한 부분도」 「중국과 미국에 각각을 대표하는 진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방주의는 안되며, 세계평화, 번영에 공동책임」



중국외교학원의 蘇浩 교수는 ‘국교수립 이래 최악’이라는 말로 현재의 미중관계를 평가했다. 중국외교부 산하의 대학으로, 외교인재의 전문양성기관인 외교학원의 국제관계전문가인 그는, 중국이 많은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의 요구는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상호의존성이 깊어진 양국이 심각한 충돌까지는 않겠지라고 내다보았다.

蘇 교수는 국교정상화 40 주년을 맞은 미중관계에 대해서 「과거의 미중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강화, 융합하는 상승곡선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역으로 하강곡선」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을 지원해 자국경제의 확장을 꾀하며, 국력이 약했던 중국은 미국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꾀했던 것이 이 40 년이라고 한다. 또, 미국이 냉전시대에 소련을 견제하고, 냉전종결후에는 테러 대응등의 전략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이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대전이후의 국제질서에 변동이 더해져, 양국의 충돌이 태동했다고 하는 것이 蘇 교수의 진단이다. 蘇 교수는 「지금의 국제관계는 미국등 서구권이 주도적이었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 개국(G20)협의체인 개발도상국이 두각을 나타내, 미국의 영향력은 약해졌다」하며, 「결국, 미국은 2 위의 경제대국이며 영향력이 큰 중국을 『경쟁상대』로 재정의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버락오바마 정부시대의 『리바란스 정책』도 중국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힐러리클린턴이 (대통령에)당선했어도 같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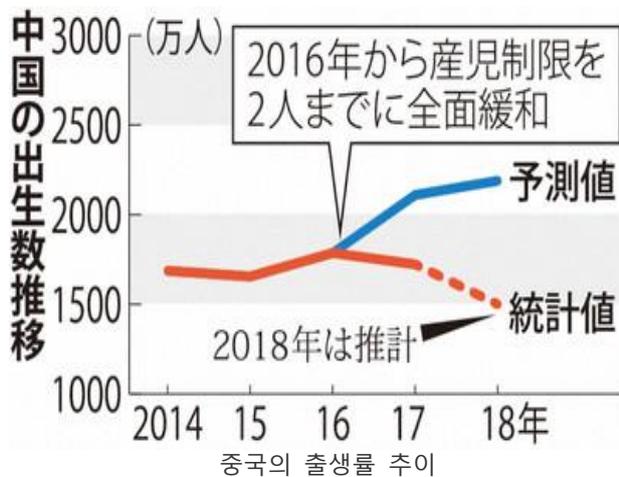
蘇 교수는, 무역전쟁의 전망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로 구조적인 모순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90 일간의 담판을 통해서 일시적인 합의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안될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는 불합리한 것도 있어, 중국이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체제와 경제구조는 일국의 특색과 정치적결정의 결과이지만, 이것을 미국의 요구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다.

그는, 갈등이 계속되어도 미소냉전과 같은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겠지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도 「미중관계는 서로 다른 두개의 사회제도의 우열을 나누는 관계도 아니며, 미중에 각각을 대표하는 진영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 「현대의 국제관계는 피할 수 없는 경제글로벌화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 『당신 속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다』와 같은 상호의존이었지만, 미중도 같다」라고 말했다. 蘇 교수는, 「중국이 한국, 일본, 독일등, 미국의 동맹국에 있어서 최대의 무역파트너라는 점도, 끊기 어려운 상호의존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을 북조선에 대한 지렛대로 보고 있고, 중국도 북조선의 비핵화 목표는 미국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국측은,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가 장애물이며, 미국이 조선반도정책을 중국 억제라는 틀에서 접근하려고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보이고 있다. 蘇교수는 「중국은 미국이 조선반도를 대중국억제전략 플랫폼으로 할 것을 염려한다」고 하고, 「(조선)반도에 쉽지 않은 평화의 흐름이 등장했지만, 북동아시아의 전략적,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의 뜻대로 간다면 남북관계의 진전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蘇교수는, 다양한 방면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책임 지고, 긍정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일방주의는 안된다」라고 해,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정에 공동책임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2.중국, 저출산 심각, 출생률 2년 연속 감소 예측(매일신문, 2019.1.5)



(2016년부터 육아제한을 2명까지로 전면완화)

중국의 저출산이 심각하다. 정부는 2016년에 1인자녀 정책을 전면철폐하고, 2명까지 출산을 인정했지만, 중국미디어에 따르면, 18년의 출생률은 전년을 크게 밀돌아, 2년 연속 감소가 된다고 예측했다. 정부계 연구기관은, 금후 10년은 인구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지만, 통계의 「부풀리기」의혹을 지적하며 「18년에 인구는 감소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중국의 추계인구는 17년말에 13억 9008만명으로 세계 최대였다. 1979년부터 1인자녀 정책으로 인구를 억제해 왔지만, 최근에는 소자고령화(저출산+고령화)가 문제가 되어, 생산연령인구는 12년부터 감소로 바뀌었다. 그래서 정부는 16년부터 2명까지 출산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예년 1월에 전년의 출생률을 공표한다. 2일자 중국지 '환경시보(영어판)'에 따르면, 복수의 인구학자가 17년의 출생률 1723만명에 비해 18년은 '200만명이상 줄어든다'고 예측했다고 한다. 정부의 소관부분은 당초, 2명까지 출산을 인정하면 출생률은 2000만명전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었다. 16년은 1786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31만명 늘어, 담당자는 「예측대로」로 평가했다. 그러나, 17년은 전년을 63만명 밀돌아, 예측과 상반하는 결과가 되었다.

장래의 인구변동에 관해, 정부계 싱크탱크·중국사회과학원은 3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9년의 14억 4200만명을 최대로 30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생률의 상황에 따라서는 3년 앞당겨지는 27년부터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미 위스콘신대학의 인구학자, 易富賢씨는 1일, 「18년은 중국이 인구감소를 시작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북경대국민경제연구센터의 蘇劍주임과 연명으로 발표했다.

논문에서는, 당국이 매년발표하는 출생률은 90년대부터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10년에 1번인 중국판 국세조사등의 대규모 조사와 비교하면 「부풀리기」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당국은 00년의 출생률은 1771만명으로 발표했지만, 같은 해 국세조사에서는 0세인구가 1379만명이었다. 합계 특수출생률

에 관해서도, 15 년은 1.6 정도로 발표되었지만,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중국통계연감」은 1.05 로 큰 격차가 있어, 화제가 되었다. 그 후의 연감에서는 출생률은 공표 안되게 되었다.

출생률 불일치에 대해서, 정부계는 「실제로 맞추기 위해서 수정을 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전의 중국에서는, 1 인자녀 정책에 의해 처분을 두려워해 현장의 지방정부담당자와 가정은 출생률을 과소보고하기 쉽고, 정부의 인구정책담당부분은 그것을 염두로 데이터를 높게 수정하는 경향이 이어져 왔다고 한다. 단, 易씨는, 최근에 오히려 아동관련의 보조금과 수당을 얻기 위해서 「과대신고의 동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 易씨등은 독자시산의 결과, 18 년 시점에서 출생률이 사망수를 밑도는 인구감소시대에 들어갔다고 결론짓고, 산아제한의 완전철폐와 과학적인 소자화정책을 제안했다.

금후, 공산당의 중요회의와 3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국회) 에서 산아제한의 완화와 철폐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 질 듯 하다.

3.중국판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세대간격차」정책이란?(하버비즈니스, 2019.1.6)

◆중국의 「95 후」세대문제에서 배우는 인재 메니지먼트

최근, 중국인과 비즈니스를 할 기회나 국내기업에서 중국인 스텝을 고용하는 흔한 광경이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확대로, 금후도 그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인재 메니지먼트에 있어서, 일본에서도 거론되는 “유또리(여유)세대”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일중양국에서 컨설턴트로서 활동하는 朱子靑씨(중국無錫시 출신, Wish&Recommend inc.이사)는 ‘중국에서는 95 년생 이후의 세대를 『95 후』라고 부르고, 그 이전과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불릴 정도로 커다란 단층이 있다. 그들이 사회인이 되어, 여러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95 년은 개혁·해방정책이 침투해, 중국이 경제발전을 이룬 때. 「95 후」는, 가난하면서 선진국을 따라잡으려 발버둥쳤던 시대의 중국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게다가 1 인 정책으로, 대부분의 부모는 맞벌이로 조부모의 손에 키워졌기 때문에 애지중지 받기만 하고 고생을 모른다. 중국의 풍요로움의 은혜를 받기만 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나라는 경제발전해, 이제는 도시로 나가면 해외와 차이가 없다. 그 이전의 세대는 자국과 해외의 차를 눈 앞에 봐 왔지만, 『95 후』는 해외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중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라온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치 고도경제성장의 은혜를 받은 일본의 거품세대의 젊은이를 방불케 하는 「95 후」도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유연하고, 자유롭고 틀에 박히지 않는 점으로, 95 후 세대는 전례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상사의 지시와 명령에도 자신이 납득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양보하고, 선배를 공경하는 유교의 가르침이 효과가 없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에 하나 위의 이노베이션을 실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중국판 실리콘밸리에서 실시되는 “「95 후」대책”

고민되는 것은, 95 후 세대에 대한 리더쉽이 어렵다는 점이다. 종래의 톱다운 형식은 전혀라고 할 정도로 듣지 않는다. ‘그들의 개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고무되어 같이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한결같이, 『이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신뢰를 얻으면 능력을 발휘해 준다’고 말했다.

중국판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국·중관촌에서는 일찍이 톱다운형에서, 멤버 한사람 한사람의 모티베이션팩터(의욕이 높아지는 요소)를 지렛대로 해 같이 가는 형의 리더쉽 스킬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프트하려 하고 있다. 그 배역에도, 95 세대에 배려를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역으로 상사가 젊은 세대에 메니지먼트를 의뢰하는 등의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다소, 과보호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확실히 95 후는 스트레스 내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들은 국내지향이 강합니다. 국내의 벤처기업이, 거의 하룻밤에 거액의 부를 얻는 『一夜爆富』의 모습을 눈앞에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상사층이 서포트해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발전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블랙기업이 젊은이를 톱다운으로 혹사하는 사례가 뒤를 잇고 있는 일본. 「95 후」와 그 메니지먼트에 관한 문제에서, 일본이 배울 것은 많을 지도 모릅니다.'라고 말을 마쳤다.

4. 「홍콩신문박물관」 홍콩미디어의 역사를 되짚다(로컬뉴스네트워크, 2019.1.7)



홍콩정부는 작년 12 월 5 일, 中環 (Central) 에 홍콩 뉴스 역사를 되짚을 수 있는 「홍콩신문박물관 (Hong Kong News-Expo / HKNE) 」 (2 Bridges Street, Central Hong Kong TEL 2205 2233) 를 개관했다. 영국의 식민지, 중국공산당의 영향등 시대의 파도에 휩쓸렸던 홍콩의 미디어 역사를 알 수 있는 장소로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홍콩경제신문)

오프닝 세레모니에는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의 모습 개관시간은 10 시 ~ 19 시. 월요일 휴관.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현재의 싱가포르에 가까워 정부비판만 하지 않는다면 보도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1997 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직후 중국정부도 홍콩에 그다지 간섭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 기자단 (RSF) 」에 의한 세계보도자유도에서 2002 년 홍콩은 랭킹 18 위에 올랐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정부의 압력이 강해져, 2018 년의 최신 랭킹에서 홍콩의 스코어는 29.04(숫자가 적을수록 평가가 높다)로, 세계 180 개국, 지역중 70 위로 2002 년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참고로 1 위는 7.63 인 노르웨이이며, 일본은 28.64 로 67 위로 홍콩과 거의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

HKNE 건물은, 1883 년에 크리스토프의 관련단체 미국의 미국공리회 (old American Congregational Mission) 에 의해서 크리스토프를 전도하기 위한 홀로서 건립되었다. 孫文도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건물은 1953 년에 건립되었고, 2011 년에 제 3 급의 역사적건조물로 지정되었다. 원래 이 일대는 많은 신문사가 사무실을 차리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鴨巴甸街 (Aberdeen Street) 주변에는 몇 곳이지만 인쇄공장이 지금도 점포를 열고 있다. 그 후, 홍콩정부는 역사적건조물을 재활용하는 「活化历史建筑伙伴计划 (Revitalising Historic Buildings Through Partnership Scheme.) 」속에서 건물을 뉴스 박물관으로서 재사용할 것을 2013 년에 결정했고, 8,530 만 홍콩달러를 투입해 2016 년부터 공사를 해 왔다.

면적은 1 만평방피트로, 최초의 중문 뉴스 신문의 소개와 영어신문, 일본통치하에서의 보도 방향성, 공영 주택을 만드는 계기가 된 1953 년의 石硤尾 (Shek Kip Mei) 에서의 대화재, 1997 년의 중국반환, 2003 년의 重傷急性呼吸器症候群 (SARS) , 2014 년의 우산운동 등 홍콩 격동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다. 또, 무선 전시 (TVB) 로 대표되는 텔레비전의 발전과 유선전시 (I Cable) 의 참가로 24 시간 태세로 보도가 가능하게 된 것도 알 수 있는 등 홍콩의 거리풍경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신문 스탠트수는 최전성기 2000 있었지만, 현재는 100 까지 줄어드는 등 다채로운 미디어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HKNE 측에서는 첫 해 이용자수를 10 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입장은 무료지만, 유지보수비가 들기 때문에 기부와 상품판매로 200 만 홍콩달러의 수입을 예상한다. 금후 2 년간은 홍콩정부에서 최대 500 만 홍콩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KIC 중국 NEWS

1. 비주얼캠프, 중국 그린루트엔젤투자사와 사업 협력 체결 (2019.1.3)



2019년 1월 3일, KIC 중국 4기 인큐베이션 참가기업 비주얼캠프는 중국 심천의 그린루트엔젤투자사와 모바일·가상현실(VR)·사이니지 등에 시선추적기술(아이트래킹)을 개발, 적용하기 위한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

가상현실/증강현실 시선추적기술 개발회사 비주얼캠프는 이번 협력을 통해 손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국의 장애인들이 비주얼캠프의 아이트래킹 기술이 탑재된 기기를 통해 실생활에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 장애인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의 장애인 수는 약 8천 500만명에 달한다. 비주얼캠프는 첫 협력 사업으로 장애인 인권 강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대상 비주얼캠프 기술이 탑재된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며, 심천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중국 성별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장애인 대상 디지털 기기 보급 이외에, 비주얼 캠프는 일반 시장에도 아이트래킹 기술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비주얼캠프는 아파트, 아파트 엘리베이터, 택시와 각종 사이니지에 아이트래킹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광고 플랫폼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린루트엔젤투자사 천웨이웨이 대표는 “아이트래킹 방면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비주얼캠프와의 협력이 큰 기대된다. 앞으로 아이트래킹은 새로운 사용자의 이용환경 및 경험이 돼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주얼캠프는 VR 과 모바일 기기에 아이트래킹 기술이 탑재된 내장형 및 외장형 모듈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있다. VR 아이트래킹의 경우 최근 중국 VR HMD(머리 착용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파이맥스와 협력해 모듈 개발중이며, 내년 1월에 열리는 CES 에서 스마트폰 내/외장 아이트래킹 기술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2.서울여대, KIC 중국 센터 방문 (2019.1.8)



1월 8일, 서울여자대학교 학생 12명과 김인숙 교수를 포함한 서울여자대학교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단이 중관촌 창업거리에 있는 한국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에 방문해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상운 센터장의 KIC 중국 센터 소개에 이어, 서울여대 학생들은 이상운 센터장과 함께 중국 IT 산업 및 창업 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외 창업의 미래에 대한 활발한 포럼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중국 창업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진 대학생들이 더 가깝게 중국 현지 시장에 대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KIC 중국이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방문한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단은 서울여자대학교 내 창업 경진 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학생들로, '글로벌 IT 비즈니스 전문가 트랙'을 베이징에서 1월 10일까지 진행한다.